

폭염에 농민도 주부도 '울상'

광주·전남 농·축산물 생육 비상 수박·복숭아·배추 등 가격 급등

역대급 폭염과 짧은 장마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농·축산물 생육에 비상이 걸리면서 먹거리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극심한 가뭄으로 단수·절수조치까지 내려졌던 광주·전남은 2년 만에 다시 가뭄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대응 대비체계에 돌입했다. 전남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051개소의 저수율은 지난 11일 기준 57%에 머물고 있다.

지역 내 주요 농업용수 공급처인 나주·장성·담양·광주 4대호의 평균 저수율도 56.7%에 불과하다. 현재 가뭄 위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용수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게 전남본부의 격정이다.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예보됐던 올해 장마가

역대 2번째로 짧고 강수량마저 적었던 데다, 폭염 등 이상고온 현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류와 상추 등 채소류의 고온피해도 잇따르고 있으며, 소·돼지 등 축사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돼지 1만 9768마리, 가금류 50만 6238마리의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과일·채소류 등의 생육 부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화순에서 복숭아를 키우는 정모(64)씨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복숭아들이) 낮에는 찌죽고, 밤에는 열대야를 견디지 못해 생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열매가 작게 맺혀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복숭아 등 제철 과일 외에도 기온 30도 이상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추, 깻잎의 출하량이 줄고, 배추는 생육과정에서 폭염에 녹아내리거나 유통과정에서 저장성이 크게 떨어져 폐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 여파로 '밥상 물가'도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소(안심·100g) 소매가는 지난 12일 기준 광주에서 1만 3185원으로 전주(1만 1960원) 대비 10.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돼지 삼겹살 소매가도 3%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1주만에 배추(27.4%), 무(15.9%) 등 국거리, 김치 등 밥상 단골 재료들의 소매가가 대폭 올랐고, 여름 대표 서민 과일인 수박은 22.5%나 경증 뛰었다.

주부 김혜란(여·51)씨는 "예전엔 구입 품목을 적어놓고 장을 보면 조금 비싸더라도 살 만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 할인 품목이 아니면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채소류와 과일류 생육 부진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농자재 할인 공급, 햇빛 차단 시설 지원, 육계 수요 전망 등 다방면에서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내가 '심심풀이 땅콩' 이라고

땅속에서 열매 맺어 영양·맛은 물론 지력 회복 이로운 작물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다. 심심할 때 땅콩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구로 열차나 비행기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판매원이 땅콩을 권하던 것에서 유래한 듯하다. 또 좋지 않은 표현으로 키 작은 사람을 땅콩에 비유하기도 한다. 키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작고 뚱뚱한 사람을 얕잡아 부른 것인데 삼가야 할 언사다.

땅콩을 한자로 쓰면 토두(土豆) 즉 '땅에서 나는 콩'이다. 알이 단단한 껍질에 싸여 있어 견과류에 속하지만, 엄격하게는 콩 과류이다. 나무에서 자라는 견과류와 달리 땅속에서 열매를 맺는 작물이다. 땅콩은 수정된 열매가 땅속에서 크며 완두콩이나 일반 콩과 같이 신축성 있는 껍질로 씨를 보호한다.

땅콩을 다른 말로 '낙화생(落花生)'이라고 한다. 꽃이 떨어져 콩이 자란다는 의미다. 꽃은 노란색이며 꽃이 진 뒤에 꽃대가 땅속을 파고들어 열매를 맺는 특이한 생육을 한다. 밭에 땅콩을 심는다면, 물 빠짐을 생각해서 두둑을 높게 하고, 꽃이 필 무렵에는 수시로 물을 쳐줘야 한다. 꽃대가 흠속에서 묻히게 하기 위해서다.

땅콩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조선 정조 시절이다. 청나라로 사신으로 간 이덕무가 신기하게 여겨 재배법을 물었고,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을 쓴 서유문도 중국에서 처음 땅콩을 먹고는 종자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때 심은 땅콩은 썩어 재배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로 번성했다는 기록이 없다. 추사 김정희도 '완당집(阮堂集)'에 "중국에서 땅콩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 우여곡절 끝에 19세기 중반쯤 재배에 성공해 퍼지지 않았나 싶다.

땅콩은 한때 곡식이 부족할 때 고구마나 감자와 함께 배고픔을 줄여주던 구황작물이었지만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작물이다. 고지방 고단백으로 13종의 비타민, 26종의 무기질 등 탁월

한 영양 성분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품고 있어 그 효용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땅콩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 또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이바지한다.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근육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B3(니아신)는 뇌 기능을 향상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땅콩을 먹는 방법으로는 볶아서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일상적이다. 대표적인 술안주다. 특히 맥주 안주로는 최고다. 보통 술집에서 먹는 땅콩은 모두 적절하게 볶아 가공한 땅콩이다. 커피와 설탕 결정을 입힌 커피땅콩, 소금과 향유로 맛을 낸 맛땅콩, 약간의 소금과 흑설탕으로 맛을 낸 꿀땅콩 등 여러 가지 간식거리, 안주거리용으로 파생되었으며 땅콩버터 같은 가공식품도 인기가 있다. 밀반찬으로 간장과 물엿을 넣어 조린 땅콩조림(땅콩자반)도 있다. 학교 급식이나 식당 반찬으로 자주 등장한다.

땅콩은 구황작물이나 안주거리, 간식을 넘어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이로운 작물이다. 논두렁이나 연작이 많은 밭에 땅콩을 심으면 지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땅콩 뿌리엔 뿌리혹박테리아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은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해 자연스럽게 땅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같이 자라던 종은 '동반식물' 역할도 수행하는데 고추와 옥수수, 상추 등과 공황이 좋아 함께 심으면 병해충 감소, 생육 촉진 효과가 있다.

실상이 이런데, 누가 감히 '심심풀이 땅콩' 같은 관용구나 '게으르기가 땅콩 같다'라는 속담으로 그 존귀함을 깎아내릴 수 있겠는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인생도 땅콩처럼만 살면 육락을 잃은 없을 것 같다. /bigkim@kwangju.co.kr

농어촌공, 'KRC SAFETY' 협의회...중대재해 제로 달성 총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8·9일 고양시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사람 중심 안전 일터 조성'을 목표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안전 보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 사례 공유' 강의를 수강하고, '2025년 국제 안전보건 전시회'를 관람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실무와 안전산업 동향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각 사업 현장의 우수 안전 사례들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담



당자 별로 논의했다. 정 부사장은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사전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

관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K-인삼' 대만 MZ세대 공략...전 메이저리거 등과 홍보

aT, SNS서 다양한 레시피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 메이저리거·대만 스포츠 인플루언서와 SNS를 활용해 국산 인삼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20·40대 대만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제품으로 인삼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기간 중 총 5편의 숏폼 영상을 대만 스포츠 인플루언서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주요 컨텐츠는 인삼의 기력 회복 효과를 집중 부각하고, 인삼 특유의 쓴맛으로 인한 섭취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지의 다양한 음료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레시피를 선보였다. 또 영유아 제품, 인삼 절편, 흑삼 등 다양한 가공 제품 등을 소개해 연령과 기호에 따른 선택폭을 넓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만의 전 메이저리거 장위정, 인기 치어리더 임다인, 프로농구 선수 이계안, 곡모유가 등이 참여했으며, 각자 전문 분야를 활용해 농구숏 챌린지, 룰렛 게임, 퀴즈, Q&A 인터뷰 등의 콘텐츠를 구성해, K-인삼을 대중에게 전했다.

전기한 aT 수출이사는 "스포츠 인플루언서의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K-인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특성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인삼을 비롯한 K-건강식품의 글로벌 저변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 축산물 사용 확대 및 원산지 둔갑 우려에 대한 조치로,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흑염소 등의 축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농관원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고속도로 휴

게소 내 즉석식품점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6일 각 식품종사법이 제정된 이후 대체 포장식으로 접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숙여 판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장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장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장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